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9호 (2003 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시에의 초대 □

가정 방문

반 칠 환

이 일을 어쩌믄 좋아, 저기 저기 감낭구 아래 담임 선생님 가정 방문 오시네. 오늘 낼 넘기믄 안 오실 줄 알았지. 뒤란에 숨으까 산으로 가까, 콩밭에 숨으까 수수밭에 숨으까, 마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첫서리하다 들킨 것처럼 뿔뿔이 달아나는데 몸은 왜 이리 고구마자루 같으까, 옴쭉달싹 못 하고 가슴은 벌렁벌렁, 선생님 벌써 사립문 없는 삽짝에 들어서시네…… 선생님 오셨어유? 치란아, 어머니 어디 가셨냐. 밭에 가셨나 봐유. 지가 불러올게 잠깐 기다리세유…… 엄마, 엄마, 선생님 오셨어. 열무밭 매던 엄마, 허겁지겁 달려 나오시는데, 펭소에 들어오지 않던 우리 엄마 입성이 왜 저리 선연할까. 치마 저고리 그만두고, 나무꾼이 감춘 선녀옷 그만두고, 감물 든 큰성 난닝구에, 고무줄 헐건 몸뻬바지 넥타이허리띠로 동여매고, 동방위 받는 시째 성 깜장색 훈련화 고쳐 신고 달려나오시는데, 조자룡이 헌창 쓰듯 흙 묻은 손에 호멩이는 왜 들고 나오시나.

양푼에 조선오이 삐져놓고, 찬물 한 대접 곁들여놓고, 엄마 옆에 붙어 앉았지만 선생님 말씀 듣기지 않고, 기름때 묻은 사기등잔이, 구멍 난 창호지가, 흙 쏟아지는 베름짝이, 쥐오줌에 쳐진 안방 천장이, 잡풀 돋는 헛간 지붕이 용용 죽겠지 눈 꿈쩍이며 선상님 나 여깃수 소릴 치네. 중고개 이정골 통틀어 제일 외딴집,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지기 집에 담임 선생님 오신 날, 나 이날 잊을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어서 선생님 오신 다음 다음날 일요일 날, 나 뒷산에 올라 대낭구 장대로 참낭구 시퍼런 누에고치를 두들겨 털었다네. 이놈 따다가 우리 엄마 참낭구 새순처럼 은은히 푸른 비단 치마 저고리 해 드려야지. 털고 또 털어 대소쿠리 그득 고치 찼지만, 그러나 엄마는 그 고치 내다 팔았고, 나 울면서 그 돈 타다 공책 샀다네.

— 시집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시와시학사)에서

《追悼辭》

살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셨던 선생님

— 故 怡耕 趙要翰 선생님 1週忌에 부쳐 —

한 석 환

언젠가는 그리 되리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홀연히 떠나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출국하기 전날 댁으로 찾아뵈었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퇴원해 정양 중이셨기에, 추운 날들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예와 다름없이 활동하실 수 있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15년만에 다시 밟은 독일 땅에서 겨우 짐을 풀고 주변정리를 마쳤을 무렵, 부음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래, 잘 갔다오소!"라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숭실을 거쳐간 사람 치고 선생님의 훈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지만, 특히 저에게는 어버이와도 같았습니다. 때론 자부(慈父)로, 때론 엄부(嚴父)로,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평균을 밑도는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늘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시고, 지치고 힘들어 할 때면 용기와 위안을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마뜩찮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면, 요즘도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합니다. 선생님이라면 뭐라 하셨을까, 하고. 그러면 선생님의 살아 생전 모습이 떠오릅니다. 중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일일수록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대신 그윽한 눈빛으로 그냥 이쪽을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응시는 폭포수처럼 세차게 내려치는 죽비였으며, 불꽃보다도 더 선명한 교시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리없는 소리였고, 형체없는 지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땅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저의 삶은 충일 했습니다. 반추할 삶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체취로 계시다는 것, 실컷 존경하고 실컷 흠모할 분이 함께 숨쉬며 같은 시대를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차례씩 왔다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았어!"라시던 노년의 말씀을 되새긴다면, 천수를 누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슬프고 애달픈 것은 순전히 제 한 몸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디에 의지를 둬야 할지 가늠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그 넉넉한 미소, 한 땀 한 땀(6면으로 계속)

□ 同門斷想 1 □

졸업하고 10년 만에

장 재 훈

원고청탁을 받고 마눌님에게 달려가 말했다.

"여보, 살다보니 이상한 글도 다 쓰게되는구려. 동문회에서 청탁이 왔는데, 나 사는 이야기를 써달라오. 철학과를 졸업한 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무게를 두고 써달라네."

마눌님이 웃으며 묻는다.

"어떻게 쓸 거요?"

"별 의미 없다. 도움도 안 됐다고 쓸 거요. 하하."

일단 웃은 다음에.

"철학과 졸업했다면 이상한 놈으로 보기나 하지. 어떤 놈은 점 볼 줄 아냐고 묻지. 이거 뭐 사는 데 하등 도움이 되겠어? 차라리 감추는 게 편하지."

마눌님이 역시 웃으며 말했다.

" '내가 철학 전공했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는 말을 표어로 삼고 살아왔다고 쓰시오. 그럼 되겠네."

"그럴까 보오."

저희 마눌님과 제가 농담하며 한 이야기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러면서 놉니다. 하지만 막상 책상에 앉아 정말 철학을 공부한 것이, 혹은 대학 4년 철학을 전공한 것이 이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생각하면,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엔 풀뿌리를 씹은 듯 짙은 씁쓸함이 번지지요. 공부에 열중하고 술과 친구에 탐닉했던 즐거움 다음엔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회한 같은 것이 섞여서 떠오르나 봅니다.

철학을 전공했다는 건 아무 것도 전공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었지요. 사회적 기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철학은, 적어도 대학 4년 배운 것 가지고는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전문인이 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실 철학과라는 학부 과정 자체가 그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철학이 바라는 인간은 전문인이 아니라 교양인이니까요. 현대사회에서 별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형이지요.

원칙을 지키고, 논리를 따지고,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서 살면 참 골치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때문에 골치 아파 하니까 피장파장이긴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여러 선생님들과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했던 대학 4년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언제나 알고싶은 것들이 많았고, 공부할 책도 넘쳤죠. 배울 건 지천인데 능력이 안되어 못 배울 뿐이지 방법이 없어 못 배운 것은 아니었으니 참 행복하고 충만했던 시절이었다고 추억합니다.

그 이후 십 년이 정신없이 흘렀군요. 대학원에 올라갔어야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몇몇 선생님들도 그걸 권해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도 고집을 부려서 회사에 취직했지요. 육 개월 쯤 다니다가 '사장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고 면전에 대고 말해서 잘린 이후 겪은 이런 저런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늘어놓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주변사람들에게 참 폐 많이 끼쳤다는 정도지요.

사는 게 힘든 거야 알아서 헤쳐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니 뭐라 말 할 것도 없지만, 공부를 하다 말았다는 건 참 후회스럽더군요. 졸업해서 돌아보니 제대로 배운 건 없고, 그저 발만 담궜다 꺼낸 정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94년 여름과 가을 봉천동 산동네에서 살던 시절엔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저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던 때였지요. 어떻게 살 것인지 알기 원해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다시 시험봐서 철학과에 들어갔고, 거기 집중해서 4년을 온전히 보냈었는데, 막상 졸업하자 그 '어떻게'가 '무슨 일을 해서'로 바뀌어 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들처럼 돈 벌어 먹고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배운 걸 다 잊어버렸던 셈이죠. 중요한 건 무얼 해서 돈 벌어 먹고살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얼 하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라는, 명백하고 단순한 사실을 2년이나 지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땐 지쳐 있던 때라 하고 싶은 일도 없어져버렸다는 것이죠. 바보스럽죠.

그 뒤에 한 선택은 더 바보스러웠습니다. 뒤늦게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 준비를 했지요. 등록금은 대주겠다는 장학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만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즐겨 읽던 무협지 내는 출판사에 습작 원고랍시고 써갔습니다. 게을러서 일기도 잘 안 쓰던 것이 소설을 쓴다고 했으니, 그것도 아르바이트 삼아 쓸 작정이었으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겁이 없어졌던 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글을, 그게 어떤 글이건 아르바이트 삼아 쓰겠다는 건 참 글에도, 저 자신에게도 모욕적인 일이라는 건 그 이후 지금까지 긴 세월동안 절감하고 있는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납니다. 애초의 목표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게되고, 근 8년간을 무협작가 '좌백' 이라는 필명으로 살아오면서 말이죠.

올 가을엔 경희대 대학원에 갑니다. 거기 국문과의 선생님 한 분이 추천해주신다는 군요. 나이 마흔이 다 되어 이제 무슨 공부가 가능할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공부는 즐겁잖아요. 즐거운 동안은 계속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랜만에 대학 졸업 후의 일들을 되짚어보니 즐거웠습니다. 시행착오와 후회로 가득한 지난 10년이었습니다만, 얻은 것 있는 듯해서 아주 적자라고만은 못 하겠네요. 적어도 이젠 맹목적으로 살진 않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철은 아직 한참 더 지나야 들 것 같지만요.

여러 선생님들과 동문 선후배님들에게 안부 여쭙니다. **(65회 • 무협작가)**

□ 同門斷想 2 □

사춘기와 닭 한 마리

김 정 석

세기말이니 밀레니엄 시대니 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3년의 해가 밝았고, 지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설까지 전화를 통해 수많은 메세지들이 날아들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많은 소식들이 아니다. 대부분 똑같은 말들로 일관되는 인삿말과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늙다리 취급을 받기 시작한 30대 중반의 사람들도 이젠 SMS 서비스 그림문자들의 현란함을 줄곧 사용한다는 사실이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땐 문득 아직 청춘은 심란하게 깊다는 것을 느낀다.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한 어느 변성기 시절, 처음으로 체모가 돋기 시작한 날의 야릇한 기운처럼 기억도 없을 줄 알았던 모든 과거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간 지점에서부터 늙어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만 숫자가 더해지는 세월처럼 껍데기만 뚝뚝 잘려나간 청춘은 아직도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상 반복되는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천성 탓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심하게 갈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 명제가 다급한지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앞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늘 '왜 사는가'에만 집착하던 시절, 그때가 아마도 사춘기였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존재의 규명은 늘 복잡한 구도 속에서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고, 어느 하나도 실감나게 다가오는 답변은 없는데도 왜그리 밑도 끝도 없이 궁금했던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시절 내가 찾던 존재라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닌 주관적 경험 속에 자리잡은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했고, 그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겪을 수 없던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을 것이다. 감수성이라는 말조차 유치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에겐 그저 감상주의적 타락에 불과했을 지도 모르는 그 시절. 잦은 시도와 실패에 민망해 더더욱 숨고만 잊고만 싶었던 날들이었다. 행복이 그리웠던 건 그 탓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관찰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질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죽음으로도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면 과연 무슨 수로 명쾌해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그렇게 소모해버리면서도 끊임없이 세월은 가고 나이를 먹고, 그렇게 높아만 보이던

아저씨라는 명함을 얻어내게 된 지금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당장의 현실과 당장의 고민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불쑥 불쑥 고개를 드미는 사춘기 시절의 문제는 외부의 시간은 흐르고 내부의 시간은 정지되어 썩지도 못하고 고여만 있는 아주 탁한 물처럼 평생을 가도 그대로일 것만 같다. 밤낮을 바꾸어 살면서 시간과 세월의 경계에 대한 인위적인 구분만 무색해졌듯이 살아있음 역시 인위적인 구분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서 말이다.

배부르고 등따시면 행복하다는 말도 말짱 다 거짓말이었던 시절에 아주 간단히 침을 뱉어버리듯 후배 하나가 명쾌한 답을 던져준 적이 있다. 행복하려면 배부르고 등따시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비어야 한다는 말... 해결이 없는 고민은 하지도 말라는 유물사관적 지침에 반발하고 싶었던 대학 신입생 시절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곤 크리스마스와 신년 메세지에 대해 하나도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어쩐지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기억 속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대화들을 나누었고, 그만큼의 추억들과 동시에 잊고 싶은 일들도 수북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지 오래지만, 언젠가는 무덤덤히 수긍해내야만 할 것들... 해결이 없는 고민이란 자꾸만 쌓여가는 과거에 붙들려 미래마저 끊임없이 과거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는 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새해가 밝았다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편의를 위한 시간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또 한 해를 맞이해서 이제 무언가 조금은 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뻐근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연락을 하지 못한 선배와 후배들 하나 둘 만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뻔한 인삿말도 건네면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싶어진다. 사춘기 시절 풀어내지 못했던 숙제들을 늘어놓고 그 자리를 위해 닭 한마리 안주로 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기억이 서서히 마비되어 머리까지 오를 때까지... **(69회 · 본교국문과 박사과정수료)**

(3면에서 계속)자수를 두듯 떠듬떠듬 주시는 온화한 가르침, 그 훈향,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맡으란 말입니까.

선생님께서 떠나가신 빈자리가 너무 누추하고 남루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맡겨진 일에 더욱 정진하며 치열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오래 전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선친과 자당을 비롯하여, 그렇게도 못 잊어하시던 사모님과 재회하셨으리라는 믿음입니다. 길섶 풀 한 포기에서도 사모님을 상기하시고, 잘 빚어진 도자기 한 점을 보고서도 사모님을 읽어내시던 선생님이 아니셨습니까. 이제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던 사모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외로움도 없고, 난마처럼 얽힌 인간관계로 속끓일 일도 없고, 시비와 정사를 가릴 일도 없을 그곳에서, 부디 영생복락 누리시기 바랍니다. **(49회 · 숭실대 철학과 교수)**

나의 값진 생애의 한 매듭

원 용 국

20년 넘게 몸담고 있던 강의실을 떠나면서 감회가 새롭다. 1962년 3월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학문에 입문을 했고, 1981년 3월에 안양대학교 신학부에서 구약학과 성서고고학을 강의하기 시작한 나의 시간강사 생활이 1983년 3월 1일에 전임 강사가 되었으며, 이제는2003년 2월 하순에 은퇴하게 되었다.

그 기간의 과정을 더듬어 보면

1. 학문의 입문

철학과의 만남은 나의 삶의 큰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시기에 나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앙 생활의 양태가 감정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의 선포 또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Cognitio Dei)이 경건의 출발이라는 외침이 나의 내면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은 엄밀함을 토대로 한 철학적 사유의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진로를 철학을 마친 후 신학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모토로 13세기 중세 철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총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다. 특별히 나는 구약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에 성서고고학에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1980년 목사로서 나는 이태리,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성지발굴에 나서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게 되었다.

2. 시련과 연단의 과정

1981년에는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더 많은 연구와 발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1984년부터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학교의 경영자들이 행정과 경영의 실수로

인해 재정적자가 되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교수와 직원들의 월급 미지급으로, 나 자신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었다. 그런가 하면 문교부 학력 인정 학교와 대학교로 전환되는 가운데 교수님들에게는,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 교수님들에게 닥쳐오는 압력과 미래의 전망은 박사 학위 취득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나는 1985년 말에 교수직을 휴직하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하와이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에서 Th. M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라기스(Lachish)를 발굴하는 것이 있었고(한국학자 최초), 다음에 LA에 가서 Southern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 D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다.

3. 도약과 성숙

위의 4년간 미국 유학과 이스라엘에서의 발굴 연구는 나에게 창세기 주석을 발간하게 하였고, 40여권에 달하는 저서뿐만 아니라 구약학 연구와 전공 도약과 성숙이 이루어져갈 수 있게 했다. 또 앞의 이스라엘 라기스(Lachish) 발굴로 그 누가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발굴을 5회씩이나 제자들과 그 분야의 교수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발굴 연구하고 신학 연구지에 발표했고, 한국 신학계에 성서고고학이라는 새로운 기반을 놓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세 가지의 큰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호석출판사를 세운는 것이고, 둘째로 한국 성서 고고학회를 창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성경과 고고학이라는 계간지를 출간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 최초의 사건들이었다.

4. 완성기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딸과 함께 했던 성지순례와 발굴작업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가족이 같이 땀을 흘리며 발굴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족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짐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의 삶의 완성은 구약학계에 기여한 업적들과 함께 가정의 안정과 자녀들의 자립과 성숙 그리고 나와 나의 아내에게 새로운 거처가 마련되면서 모든 면에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회고하여 보면, 한 사람의 평범한 철학도로 출발한 나의 젊은 시절에 신앙과 이성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방황했던 것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했던 것 같다. 그 시기에 했던 방황이 사치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지음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의 값진 생애의 한 매듭을 지어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의 크신 능력과 내리신 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37회 · 안양대 교수)**

◆ 나의 학위 논문 ◆ 숭실대학교, 2003년

폴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에 관한 연구

양 황 승

텍스트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텍스트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석의 대상"으로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 그리고 역사적 기념비와 같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리쾨르가 그의 텍스트 해석 이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고전, 성서, 문학작품, 그리고 역사와 같은 "글로 고정된 담론"으로서의 텍스트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우리는 독서를 통해 만나게 된다. 독서를 통해 텍스트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텍스트의 의미"와 더불어 그 의미가 지시하고 있는 "텍스트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저자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용자의 입장에서 독자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인식론적/객관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의 주관을 중시하는 존재론적/주관적 입장이다. 슐라이어마허와 딜타이는 전자의 입장에 있고, 하이데거와 가다머를 후자의 입장에 있다. 리쾨르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이 두 입장이 모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의 텍스트 해석 이론을 통하여 이 두 입장을 종합하고자 한다. 즉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떠나고 독자의 주관을 떠나 텍스트 자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은 해석학과 현상학과 구조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리쾨르는 해석학과 현상학, 그리고 해석학과 구조주의 사이에 상호 전제성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그의 텍스트 해석 이론에 적용한다. 먼저 해석학은 이미 현상학의 기본 개념인 의미, 환원, 경험, 그리고 시간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현상학 또한 의미구성에 있어 해석학적 계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리쾨르는 해석학과 구조주의와 관련하여 의미의 전이에 대한 해석학적인 이해가 없다면 어떠한 구조적 분석도 있을 수 없고, 텍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적 이해가 없다면 어떠한 의미도 재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쾨르는 글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통해 담론 이론을 텍스트 해석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리쾨르에 따르면 구어 담론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담론의 의미와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화자가 의미하는 것과 담론이 의미하는 것이 같다. 그러나 마주 대하는 말하기-듣기 관계가 읽기-쓰기라고 하는 좀 더 복잡한 관계로 바뀌면 대화적 상황이 깨진다. 이런 경우에, 쓰기-읽기 관계는 더 이상 말하기-듣기 관계의 특유한 경우가 아니다. 구어 담론에서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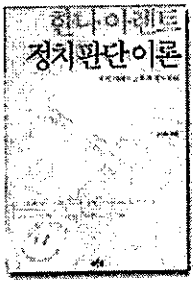
달리 문어 담론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 씀으로서 대화적인 상황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동시에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얻게 된다.

리쾨르는 텍스트의 개념을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밝히고 있다. 첫번째 특징은 텍스트의 자율성이다. 담론이 글쓰기에 의해 고정되면, 그것은 이미 저자, 최초의 청자, 그리고 최초의 명시적 지시로부터 의미론적 자율성을 얻는다. 둘째, 텍스트는 구조화된 작품으로서의 담론이다. 작품으로서의 텍스트는 구성, 장느, 그리고 문체를 특징으로 갖는다. 셋째, 텍스트의 자율성과 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세계를 기획한다. 텍스트의 세계는 프레게에 있어서는 '담론의 지시체'이고,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가능한 새로운 세계'이며, 가다머에 있어서는 '텍스트의 사실'이다. 넷째, 텍스트는 매개적 특성이 있다. 텍스트는 그것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독자의 자기이해를 매개한다. 따라서 리쾨르에 있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텍스트 이해의 목적은 텍스트 앞에서의 독자의 자기이해이다.

리쾨르는 텍스트 해석의 방법론으로서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리쾨르는 딜타이와는 달리 설명과 이해의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리쾨르는 이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을 먼저는 이해에서 설명으로, 그리고 다시 설명에서 이해로 이행해 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첫 단계의 이해는 텍스트의 의미를 소박하게 파악하는 정도의 이해이다. 둘째 단계의 이해는 설명적 절차들의 도움을 받아 한층 더 정교해진 이해를 말한다. 첫 단계의 이해는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것은 전유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리쾨르는 그가 텍스트 해석 이론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이 인문과학 분야의 일반적 해석의 패러다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그의 텍스트 해석 이론을 인간의 행위나 역사 이론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64회 · 본교 강사)**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김 선 욱 저 /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이론** / (푸른숲 펴냄)



이 책은 학계에서 아렌트 관련의 논문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해 온 김선욱 동문이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낸 것이다. 정치가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손에로 다시 돌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정치적 행위란 무엇인가, 왜 정치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시민정치참여의 시대, 문화시대라는 시대 의식을 가지고 저자는 참여민주주의 주창자로 간주되는 아렌트의 정치 사상에서 정치 행위를 통한 자기 표현이란 정치적 참여행위의 중요성과, 이와 아울러 참여자들 상호간의 소통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명한다. (값 12,000원)

□ 同門을 찾아서 13 □

철학자의 모습으로

— 관동대학교 교수 이 윤 일 동문(54회)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리: 김범수(동문회 간사 · 대학원 박사과정)

눈이 무척 많이 온 다음 날이었다. 대관령의 적설량은 대략 50cm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막바지 추위가 강원도 일대를 덮었다. 1월의 대관령에서는 눈이 옆으로 내렸다. 매서운 바람은 쌓여있던 눈은 내버려두지 않았다. 도로로 덮이는 눈은 고속도로 위 차량에 앉은 사람들을 불안하기에 충분했다. 이 고비만 넘으면 바로 강릉인데...

많지 않은 차량의 행렬은 느린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서울에서 강릉은 물리적 거리보다 힘들게 했다. 겨울을 시련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강릉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겨울은 여행의 편안함보다는 시련을 주었다.

무사히(이 말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 차량 앞에서 교통 사고가 있었으므로...) 대관령을 넘어 강릉까지 갈 수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차량 유리를 꽁꽁 얼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강릉 시내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자마자 관동대학교를 찾을 수 있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여름의 유혹을 뿌리치고 겨울에만 이윤일 선생님을 찾았다. 여름에 강릉을 찾는 것은 기만이다.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찾아오는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윤일 선생님이 다른 때보다 바쁜 때가 여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름만큼은 피하려고 한다.

우리들이 선생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책을 보고 계셨다. 작년에 왔을 때, 푸코며 프랑스 철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나를 당혹하게 만드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오늘은 비교적 경직된 표정(?)이셨다. 처음부터 인터뷰는 싫다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인터뷰는 싫다고 한사코 사양하셨던 분이기에 괜히 서먹한 느낌마저 들기도 했다.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동안 침묵. 그리고 따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이윤일 선생님의 따님이 대학 입학을 하게되었다. 선생님은 따님이 이화여대 철학과에 입학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작년에 지나가던 말로 요즘 우리 딸이 당신 책 읽고 있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난다. 딸이 은근히 철학을 하게될 것 같다는 말씀이었다. 내심 반가움과 두려

움이 교차했을 것이다. 작년에는 우리 앞에서 따님이 철학을 하는 것이 은근히 두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국에서 철학을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사람의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그런 말씀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윤일 선생님은 따님에게 졌다.

이 윤 일

연구실에서 날씨 얘기며 철학 얘기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횟집으로 향했다. 경포대에 있는 횟집에서 가볍게(?) 회를 먹으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도 함께 먹었다. 그리고 故 조요한 선생님과 최명관 선생님에 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 최근 최명관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면 과거와는 다른 인사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옛날에 전화하면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내가 갈 때가 됐어'로 시작하셨지.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어. '가까스로 살아있어'라고." 웃음도 나왔지만, 요즘 선생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걱정도 되었다.

#강의에 관한 짧은 이야기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 모교에서 시간 강사로서 강의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선생님이 모교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던 때는 84년이라고 한다. 그때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고, 분석철학을 연구하고 있을 때였다.

-언제부터 강의하셨죠?

-84년도.

선생님과 얘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말씀을 하셔도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당히 살을 붙여서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 그것이 그분이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과목이었죠?

잠시 회상에 잠기시다가 국민윤리와 철학개론, 그리고 전공과목에서 논리학을 떠올리셨다.

-아마 국민윤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삼열(60회)이가 처음이었을거야.

84년.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강의했냐는 사실보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가 더 쉽게 떠올랐던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유현상 선배(65회)가 나에게 해준 얘기가 기억이 났다. 86년. 유현상 동문이 처음으로 〈논리학〉 수업을 들었을 때였다. 그때 담당 선생님이 이윤일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유현상 동문은 나름대로 열심히 논리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험 전날 약간의 과음(?)을 하고 시험 시간에 늦게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전날의 술기운에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윤일 선생님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때 이윤일 선생님은 대번에 "그런데 시험은 왜 그렇게 봤냐"라는 한 마디를 하셨다고 한다. 그 얘기를 아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윤일 선생님답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별로 말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이 수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제자에 대한, 후배에 대한 관심은 무척 받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당시 논리학을 가르쳤는데, 진도를 많이 나갔지. 양상논리까지 나갔으니까. 지금도 양상논리까지는 못하지.

- 대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는데요?

- 외부 대학을 많이 돌아다녔지. 서울대, 연고대, 중앙대, 이대, 한양대. 여러 학교

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그때 최명관 선생님이 "자네는 다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으라"고 하시더군.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지. 이명현 선생, 이종권 선생, 정대현 선생, 진교훈 선생... 이런 분들에게 공부했지.

선생님은 이 말을 하면서 은사님께 많은 존경의 감정을 얘기하려는 모양이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전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최명관 선생님 수업 때 시험 답안을 불어로 썼다는 얘기다. 물론 진실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자 선생님은 한참을 웃으며 반문 하셨다. "누가 그래?"

- la pensee sauvage(『야생적 사유』)를 읽은 적이 있지. 그때 대학원에서 불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읽고 싶다고 해서 읽은 적이 있었어.

아마도 거짓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 모양이다. 최명관 선생님이 간혹 나에게 과거에 불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윤일 선생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 수업 시간에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학부 때 불어로 수업하기도 했나요?

-아니. 텍스트는 영어였지. 그런데 3학년 때 방법서설을 불어로 읽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 그때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분석철학과 하이데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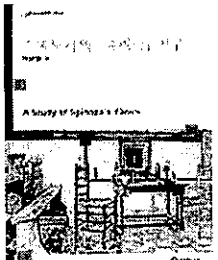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야 할 것 같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윤일 선생님은 모교에서 쉽게 나오기가 힘든 전공을 선택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다. 당시에 분석철학이 유행은 아니었다. 70년대 학번이면 서양철학 중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시대가 아니던가?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분석철학을 선택하셨죠?

-그거야 분석철학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지.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박 삼 열 저 /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 (선학사 펴냄)



이 책은 박삼열 동문이 여러 학술지에 발표한 글을 수정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난해하기로 소문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인식론과 병행되면서 전개되고, 또한 인식론은 그의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체, 속성, 양태 따위의 개념들을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 해석들의 문제점을 일반독자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값 9,000원)

그 대답에 약간의 장난스러움도 묻어있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역시 세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사람을 계면쩍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 숭실대학교 철학과 커리큘럼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전부 대륙 철학적이었지. 나중에 영미 철학이라고는 4학년 1학기 때 있었지. 그전까지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겠는거야. 그래서 오기가 생겼지. 이것을 해야겠다는... (잠시 침묵 후) 그런데 잘못했어.
-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그 전공이 자신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격에 맞는 학문을 했다거나 등...
- 좀 지난 다음에 느낀 것인데, 내 기질은 분석철학이 아니야. 오히려 대륙철학이지. 전공 선택을 잘못했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서양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하이데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어느정도를 얘기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신 모양이다.
-사고의 깊이를 따지면 아무래도 하이데거가 비트겐슈타인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애.

그리고 하이데거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하이데거가 나치 정권과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 그리고 어떤 오해가 발생했는지. 최근 하이데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았다.

- 요즘에는 대륙철학은 많이 보는데, 이제는 분석철학이나 대륙철학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도 하지. 두 가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후설의 방법론을 분석철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타르스키. 아주 기가 막히게 비슷하지.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니체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

한참동안 대륙 철학과 분석철학의 관계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아마도 교양으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지라 전공자들과 철학에 관련된 얘기가 무척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특히 노자와 후기 하이데거를 비교하는 부분은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철학의 대중화?

진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관동대와 철학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관동대학교는 명지대학교와 같은 재단이다. 최근 명지대에서 철학과가 생기고,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관동대학교에서도 철학과가 생길 수 있을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윤일 선생님이 쓴 『현대의 철학자들』를 읽은 학생이 선생님께 직접 찾아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선생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재 관동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박삼열 동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관동대학교에서도 철학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관동대학교를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라구요. 의대도 있고. 이 학교에 철학과가 생길 수는 없을까요?
-음. 철학을 교양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공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지. 우선 나 자신이 만들고 싶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매우 미묘할 것 같았다. 지방대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현재 선생님께서 전공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사정도 감안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다. 조금 전까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철학과가 많이 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철학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했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와 영어에 밀려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교양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실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교양이 아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위상은 너무 낮아졌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얘기해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옛날에는 명강의가 선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내서 학생들이 감동을 받게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아니지. 요즘은 학생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야 명강의지. 그게 요즘 현실이잖아.

선생님의 이 얘기가 요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쉽고 적당히. 이제 강의도 쉽고 적당히가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많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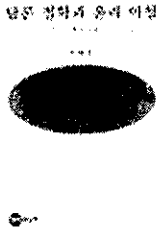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앙리 르페브르를 읽어 보았는지를 물으셨다. 아마도 요즘은 프랑스 사회철학적 배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작년도 그러했다. 베르그송에 관한 이야기, 들뢰즈에 관한 이야기를 내게 물어보시더니 현대 철학자에 관한 책을 한 권 내셨다. 그 책의 내용은 보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준다.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최소한 내가 전공했던 베르그송 부분을 읽어도 반성하게 만든다. 선생님은 "지금 너는 밤 잠 안 자고 공부할 때"라고 나를 다그치셨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먼 길이지만 짧은 일정을 아쉬워할 수 밖에 없었다.

-끝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박 해 용 저 / 담론 철학과 윤리 이성 / (두리미디어 펴냄)



이 책은 박해용 동문이 아펠이나 하버마스 등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철학하려고 하면 가상적 대화의 경우에도, 실질적 대화의 경우에도 대화의 형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어어는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갖지만 언어 체계에 담긴 내용은 보편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의사 소통의 전제가 될 것이다. 보편성과 윤리 이성이 대화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 이성의 실천적 적용이 곧 의사 소통적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값 20,000원)

동 문 회

Ⅰ. 동문 소식

▶**이승렬** 동문(49회 · 기독교대학원 교수) 2003년 1월 5일부로 대치동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한편 2월 10일부터 14일에 개최된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전국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개혁 교회의 사회봉사적 전통과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배선복** 동문(53회) 지난 2002년 9월 1일부로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민족문화 연구소에 연구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연구실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031-709-8111(교환 140)

▶**김선욱** 동문(55회) 2003년 3월 1일부로 숭실대 철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김선욱 동문은 뉴욕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99년에 귀국해서 꾸준히 모교와 경기대 등지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서울대 미국학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 **철학과 동문회**는 1월 9일(목) 오후 6시 방배동 놀부집에서 계미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철 학 과

Ⅰ. 교수 동정

▶**이삼열** 교수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기독교대학원 세미나에서 "세계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과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백도형** 교수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연구년을 맞이하여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체류하게 되었다.
(주소)Box 1918 (Philosophy Department)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02912
U. S. A.

▶**곽신환** 교수가 2003년 3월 1일부터 철학과 학과장과 대학원 주임교수로 수고할 예정이다.

▶**한석환** 교수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독일 콘스탄츠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강의에 복귀하게 되었다.

Ⅱ. 학과 동정

▶철학과에서는『思索』18집을 발간하였다.『思索』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동문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철학과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양주로 엠티를 다녀왔다. 또한 학술발표회를 가졌는데, **김시천** 씨(66회 · 본교 박사과정 수료)가 "노학에서 역학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 **철학과**로 2003학년도 제1학기에 김화포, 오신영 씨(학사편입학)와 김주영 씨(일반편입학)가 편입시험을 통해 새로 들어온다.

▶ 추가 전형으로 **대학원 철학과**에 **안재우** 씨가 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00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입학생은 박사

할 것이고, 현재 선생님께서 전공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사정도 감안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다. 조금 전까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철학과가 많이 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철학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했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와 영어에 밀려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교양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실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교양이 아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위상은 너무 낮아졌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얘기해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옛날에는 명강의가 선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내서 학생들이 감동을 받게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아니지. 요즘은 학생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야 명강의지. 그게 요즘 현실이잖아.

선생님의 이 얘기가 요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쉽고 적당히. 이제 강의도 쉽고 적당히가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많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앙리 르페브르를 읽어 보았는지를 물으셨다. 아마도 요즘은 프랑스 사회철학적 배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작년도 그러했다. 베르그송에 관한 이야기, 들뢰즈에 관한 이야기를 내게 물어보시더니 현대 철학자에 관한 책을 한 권 내셨다. 그 책의 내용은 보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준다.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최소한 내가 전공했던 베르그송 부분을 읽어도 반성하게 만든다. 선생님은 "지금 너는 밤 잠 안 자고 공부할 때"라고 나를 다그치셨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먼 길이지만 짧은 일정을 아쉬워할 수 밖에 없었다.

-끝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박 해 용 저 / **담론 철학과 윤리 이성** / (두리미디어 펴냄)

이 책은 박해용 동문이 아펠이나 하버마스 등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철학하려고 하면 가상적 대화의 경우에도, 실질적 대화의 경우에도 대화의 형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어어는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갖지만 언어 체계에 담긴 내용은 보편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의사 소통의 전제가 될 것이다. 보편성과 윤리 이성이 대화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 이성의 실천적 적용이 곧 의사 소통적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값 20,000원)

동 문 회

Ⅰ. 동문 소식

▶**이승렬** 동문(49회 · 기독교대학원 교수) 2003년 1월 5일부로 대치동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한편 2월 10일부터 14일에 개최된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전국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개혁 교회의 사회봉사적 전통과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배선복** 동문(53회) 지난 2002년 9월 1일부로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민족문화 연구소에 연구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연구실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031-709-8111(교환 140)

▶**김선욱** 동문(55회) 2003년 3월 1일부로 숭실대 철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김선욱 동문은 뉴욕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99년에 귀국해서 꾸준히 모교와 경기대 등지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서울대 미국학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 **철학과 동문회**는 1월 9일(목) 오후 6시 방배동 놀부집에서 계미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철 학 과

Ⅰ. 교수 동정

▶**이삼열** 교수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기독교대학원 세미나에서 "세계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과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백도형** 교수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연구년을 맞이하여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체류하게 되었다.
(주소)Box 1918 (Philosophy Department)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02912
U. S. A.

▶**곽신환** 교수가 2003년 3월 1일부터 철학과 학과장과 대학원 주임교수로 수고할 예정이다.

▶**한석환** 교수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독일 콘스탄츠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강의에 복귀하게 되었다.

Ⅱ. 학과 동정

▶철학과에서는 『思索』 18집을 발간하였다. 『思索』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동문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란다.

▶**철학과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양주로 엠티를 다녀왔다. 또한 학술발표회를 가졌는데, **김시천** 씨(66회 · 본교 박사과정 수료)가 "노학에서 역학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 **철학과**로 2003학년도 제1학기에 김화포, 오신영 씨(학사편입학)와 김주영 씨(일반편입학)가 편입시험을 통해 새로 들어온다.

▶ 추가 전형으로 **대학원 철학과에 안재우** 씨가 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00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입학생은 박사

과정에 **권일훈**(67회), **백두환**(72회), **정재식** 씨(대학원), 석사과정에 **최정화**(63회), **이정훈**, **김현진**, **안재우** 씨 등 모두 7명이 되었다.

▶ 2003년 2월 21일에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박사 1명, 석사 2명을 배출하였다. **박사 학위**는 **양황승** 씨(63회)가 "폴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석사 학위**는 **이성준** 씨(72회)가 "淮南子 呪術訓에서 無爲"로, **정재식** 씨(대학원)가 "한나 아렌트의 '평범한 악'의 정치 철학적 의미"로 각각 학위를 취득했다.

▶ 3월 3일 역사철학과군으로 74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었다. 역사철학과군에 소속된 신입생은 내년 1월에 철학과나 사학과로 배정하게 된다.

주소 업데이트

▶**원용국** 동문(62회 · 목사)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186-22 서강아파트 1동 710호 (전화)395-7796, (휴대폰)019-288-2508

▶**이승렬** 동문(49회 · 목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4번지 대치현대아파트 104동 104호

▶**신동택** 동문(75회)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공 아파트 22동 402호

▶**이일수** 동문(75회)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387번지

▶**강연주** 동문(75회) 서울 광진구 중곡2동 609 삼민 아파트106호

▶**김성은** 동문(75회) 전남 광양시 태인동 1442-1

▶**모세은** 동문(75회) 서울 강동구 암사3동 445-8 신흥 빌리지 A동 101호

▶**서양호** 동문(75회) 서울 동대문구 휘경 1동 78번지 롯데 아파트 102동 407호

▶**안성균** 동문(75회) 서울 은평구 가련2동 243-28

▶**권상호** 동문(75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삼성 1차 아파트 104동 1803호

▶**김태영** 동문(75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961번지 미성연립 나동 302호

▶**방찬일** 동문(75회)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시영 아파트 46동 501호

▶**고범수** 동문(75회)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주공 아파트 445동 107호

▶**구종회** 동문(75회) 서울 은평구 응암2동 612-2호

▶**김진우** 동문(75회)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31-11 원주 빌라 202호

▶**박정민** 동문(75회) 서울 영등포구 대림 2동 1026-38 37/5

▶**신성훈** 동문(75회)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1-25번지 타워그린빌라 B동 101호

▶**신재호** 동문(75회) 서울 양천구 목 3동 630-11 11/6

▶**이정주** 동문(75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 아파트 340동 906호

▶**김윤겸** 동문(75회) 서울 금천구 시흥4동 1-1호 모원빌라 202호

▶**이경훈** 동문(75회)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78-14 1/7

▶**문윤정** 동문(75회) 서울 양천구 신정6동 목동 아파트 1307동 1005호

▶**이미영** 동문(75회) 서울 강동구 천호3동 448-34호

▶**장민아** 동문(75회) 서울 마포구 동규동 204-39

▶**임병민** 동문(75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196-27

▶**정욱** 동문(75회) 전남 담양군 용면면 추성리 455-3

▶**김종천** 동문(75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4 조양그랜드빌라 102호

▶**이근혜** 동문(75회)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46-45 1/7

▶**이하나** 동문(75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우성 3차 아파트 305동 502호

▶**허인영** 동문(75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 1동 441-8 동신 아파트 3동 609호

기 타

Ⅰ.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 **연 회 비:**
  회 장 단(15만원)
  임 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예금주) 숭철동문
  우리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계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9호 (2003 봄)
2003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문 영 식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su.ac.kr